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북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인원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1월 24일 수요일 (음 12월 8일) 제197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 2023 새만금 잼버리 추진단 출범

도, 잼버리 상징하는 날로서 차질없이 준비하자는 의미

청사에 작은 홍보관도 개관 이해하기 쉬운 공간 구성

전북도는 23일,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추진단' 출범식과 잼버리 홍보를 위한 '작은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

개관식에는 전북도지사,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노조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 현판제막식과 작은 홍보관 개관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이번 행사 날짜가 '23 세계잼버리'를 상징하는 날로서 반구십리 각오로 세계잼버리를 차질 없이 준비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8월 1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한 직후 잼버리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잼버리추진단'을 TF팀으로 운영, 올해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세계잼버리추진단'을 정식기구로 신설, 이날 출범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작은 홍보관은 추진단 사무실이 있는 도청 2층에 설치되었는데 특이점은 전북도 최초 건물 내벽을 활용한 랩핑 디자인으로 세계잼버리를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이밖에도 잼버리를 상징하는 대형텐트, 캠프용품, 잼버리홍보물 등이 진



23일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추진단 출범식과 잼버리 홍보를 조성하기 위한 작은 홍보관 개관식을 도청 2층에서 열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열, 유치과정 사진이 전시되어 도민들이 잼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도는 앞으로 홍보관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하여 잼버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편히 쉬어가는 잼버리공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에는 169개국 5만 여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야영대회로써 국제 청소년교류 활성화가 기대되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세계잼버리추진단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반구십리(半九十里)의

각오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빈틈 없는 새만금세계잼버리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국제행사로 가장 한국적인 전복을 세계 속에 알리는 기회로 삼자"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도내 최초 모든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설치

전주시, 시민교통분야 추진전략 제시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 이용 개편 등도

전주시는 올해 전북지역 최초로 모든 시내버스에 승객들이 버스위치와 환승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노선도를 설치하고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하는 등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또 장애인콜택시인 이지콜과 교통약자 셔틀버스, 농촌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모심택시, 관광객 맞춤형 관광택시 등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관광객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민교통본부장은 23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민교통 분야의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고품격 생태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한 교통 분야 4대 추

진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 △사람 우선의 나누고 공유하는 교통안전 환경 조성 △생태교통수단 확대를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문화 조성 △고품질 차량등록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및 시민안전 확보다.

먼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서비스 구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자가 많은 한옥형 승강장 4곳과 유계승강장 14곳 등 총 18곳을 따뜻한 정류장으로 만들고 교통약자 셔틀버스 3개 노선을 수요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또 셔틀버스 2대와 장애인콜택시 5대 등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증차하고 셔틀버스전용 승·하차 안내 표지판 설치 등을 통해 편리한 특별교통수단 이용기반을 구

축할 계획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에서 소외된 농촌마을과 자연부락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형 택시인 모심택시를 확대 운행하고 주요 관광지에 대한 지식을 갖춘 관광택시 운영을 활성화해 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전주의 문화와 역사, 관광명소, 맛집 등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시민들을 위해 경제성과 예술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중교통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오는 2021년까지 4개년에 걸쳐 전체 시내버스 422대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구축, 시민들의 무선 인터넷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 부착된 기존 종이 인쇄물 방식의 노선도를 남녀노소 누구나 식별이 용이한 전자식 노선도로 바꿔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버스의 현재 위치와 노선정보, 환승정보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자전거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데도 주력하기로 했다. 이어 신속·정확한 차량등록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무보험 운행차량에 대한 신속·정확한 수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명예건설기계감시원과 합동점검 등을 추진하는 등 시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차량등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채규남 기자

### 社告

제4회 무주군 체육회장배

## 전국 스키·스노보드 대회

기간: 2018년 1월 30일(화) ~ 1월 31일(수)

장소: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전주매일신문이 동계스포츠 인구 저변확대와 유망주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무주군수배 스키·스노보드대회'를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추천: 전주매일신문, 무주군
- ▲주관: 전북스키협회
- ▲후원: 전북도, 무주스키협회, 무주덕유산리조트
- ▲참가지역: 스키(만 10세 이상), 스노보드(고교생 이상)
- ▲참가접수: 이메일(jjmaeil1@hanmail.net) 또는 팩스(063-288-9703), 홈페이지(www.jjmaeil.com)
- ▲문의: 전주매일신문 문화사업국(063-288-9700)

전주매일

## 올 성평등기금 1억1100만원 확보

전주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 올해 지원사업 대상 선정  
건강가족지원센터 '너와 내가 달라...' 등 8개 사업에 지원

전주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숙 교수, 원광대)는 23일 시청 5층 영상회의실에서 2018년도 심의위원회를 개최, 양성평등사회 촉진을 위한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대상 단체를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공모에 신청한 9개 단체의 10개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너와 내가 달라 행복해요(전주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의 사회참여로 변화를 꿈꾸는 행복한 도전(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총 8개 사업에 1억 1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단체에서는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한 후 보조금을 신청하

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올해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기금 1억1100만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9일과 10일 전주시역비영리법인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접수했다.

전주시 북지환경국 관계자는 "올해 선정된 성평등기금 사업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및 양성평등의식이 확대되고 가정과 직장, 사회생활 모든 분야의 활동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촉진제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는 성평등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 보호, 여성 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기금의 관리·운영·심의를 맡고 있다.

/채규남 기자

### 매일 INDEX

3면 - '블랙리스트 7인방' 2심 전원 유죄... 조윤선 법정구속




##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